【2012.7.31(화) 강원일보】

도내 건설업체 전국 100위권에 1곳뿐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공개

도내 건설업체들의 경영실적을 수치화한 시공능력평가액 순위가 30일 공개됐다. 시공능력평가액(시평액)은 지난 한 해 건설업체의 시공실적, 재무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 평가해 공시하는 금액으로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및 대기업 도급하한제도의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요진건설산업 시평액 9년째 도내 1위 고수
(주)경동건설 17개업종 중 6개종 1위 차지
(주)한국이엔씨 설비건설분야 6년째 정상

■요진건설산업 9년 연속 1위 고수=국토해양부와 건설협회가 30일 공개한 시평액 순위에 따르면 원주 요진건설산업(주)이 토목건축분야 시공능력평가에서 9년째 도내 1위를 고수했다. 요진건설산업은 시평액 3,319억9,800만원으로 도내에서 1위, 전국에서 72위를 기록했다. 전국 순위 100위 내에 진입한 도내 업체는 요진건설산업이 유일하다.

고성 현대아산(주)이 1,317억8,500만원으로 2위를 지켰으며 강릉 신화건설(주)은 1,131억6,200만원을 기록해 지난해 보다 세 계단 높은 3위를 차지했다. 원주 정상종합건설(주)(1,098억원)과 정선 대림종합건설(주)(972억원)은 각각 4위와 5위에 올랐다.

■경동건설·한국이엔씨 업계 수위= 도내 전문건설업체 시평액 순위에서는 삼척 (주)경동건설이 17개 업종 중 6개 업종에서 도내 1위를 차지했다.

경동건설의 시평액 1위 업종은 토공(788억원), 미장방수조적(242억원), 비계구조물(244억원), 철근콘크리트(551억원), 상하수도 설비공사업(253억원), 보링그라우팅(366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업종별로는 △실내건축 공사업 금강아트(57억원) △석공공사업 (합)태승건설(61억원) △도장공사업 (주)기흥종합건설(38억원) △금속창호 한라엔컴(주)(300억원) △지붕판금·건축물 조립공사업 그린건설환경(합)(30억원) △포장공사업 (주)삼우아이엠씨(471억원) △수중공사업 (합)현대산업(93억원) △조경식재공사업 청원조경(주)(112억원)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청원조경(주)(104억원) △강구조물공사업 (합)한라엔지니어링(33억원) △승강기설치공사업 동양산전(주)(21억원) 등이 각각 도내 시평액 1위로 집계됐다.

설비건설 분야에서는 원주의 (주)한국이엔씨가 기계설비공사업종에서 240억원으로 6년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가스시설공사 제1종 1위 업체는 삼척 (주)화련산업(69억원)으로 조사됐다.

■건설업계 빅3 '현대-삼성-대우'로 재편=전국적으로는 현대건설(주)이 종합(토목·건축 분야) 시평액 11조7,108억원으로 4년 연속 1위에 올랐다.

삼성물산(주)이 10조1,002억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2위를 지켰으며 (주)대우건설(9조2,224억원)이 차입금 상환 등 재무구조 개선으로 지난해 6위에서 3위로 껑충 뛰어올라 2009년 이후 3년 만에 '빅3'에 진입했다. 이어 GS건설(주)(8조9,002억원), (주)포스코건설(8조1,298억원), 대림산업(주)(8조556억원)은 한 계단씩 내려앉아 4·5·6위를 기록했으며 롯데건설(주), 현대산업개발(주), SK건설(주)은 지난해와 같이 7·8·9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10위였던 두산건설은 대규모 적자에 따라 10위권 밖으로 물러나고 두산중공업(주)이 'TOP 10'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하위윤기자 faw4939@kwnews.co.kr

◇일반공사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단위 : 백만원)

순위	업체명	평가액
1	요진건설산업(주)	331,998
2	현대아산(주)	131,785
3	신화건설(주)	113,162
4	정상종합건설(주)	109,773
5	대림종합건설(주)	97,195
6	섬강종합건설(주)	94,578
7	동일건설(주)	91,013
8	(주)대 양	89,755
9	(주)우 일	79,322
10	(주)효 성	71,316

◇설비공사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단위 : 백만원)

구분	순위	업체명	평가액
기계설비공사업	1	(주)한국이엔씨	23,972
	2	동양시멘트E&C(주)	15,622
	3	화신기업(주)	8,813
	4	(주)화련산업	6,878
	5	현대기계건설(주)	5,425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1	(주)화련산업	6,931
	2	(주)일진엔지니어링	2,963
	3	(합)일성엔지니어링	2,277
	4	(합)천우	2,247
	5	(주)태광건설	1,725

◇2012년 도내 전문건설업종 시공능력평가 (단위 : 백만원)

업종	업체명	시공능력평가액
실내건축	금강아트	5,694
토 공	(주)경동건설	78,790
미방조적	(주)경동건설	24,193
석 공	(합)태승건설	6,088
도 장	(주)기흥종합건설	3,784
비 계	(주)경동건설	24,413
금속창호	한라엔컴(주)	30,023
지붕건조	그린건설환경(합)	2,979
철 콘	(주)경동건설	55,060
상하수도	(주)경동건설	25,333
보 링	(주)경동건설	36,578
포 장	(주)삼우아이엠씨	47,107
수 중	(합)현대산업	9,266
조경식재	청원조경(주)	11,159
조경시설	청원조경(주)	10,391
강구조물	(합)한라엔지니어링	3,300
승 강 기	동양산전(주)	2,115

현안예산 또 누락 땐 올림픽 차질

1차 심의서 동계올림픽 준비 사업비 등 대부분 배제
2차서 반영 안 되면 도 발전전략 등 추진에 심각 우려
기재부 내달 6일부터 심의… 9월20일께 국무회의서 확정

2018평창동계올림픽 준비 등 새로운 현안사업비 대부분이 기획재정부의 2013년도 예산안 1차 심의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달 6일부터 시작되는 2차 심의에서도 이 현안사업비가 반영되지 못하면 지역 발전전략은 물론 동계올림픽 준비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

30일 도와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도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요청한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시설 및 진입도로 건설을 위한 2013년도 사업비 1,599억원은 기획재정부의 1차 심의에서 신규사업이라는 이유로 2차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또 평창군 대관령면에 들어설 식수전용저수지 건설사업비도 2차 심의 대상이 됐다. 환경부는 총 800억원의 식수전용댐 사업비 중 설계비 10억원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 상태다.

춘천 레고랜드를 위한 교량 건설비 200억원(3년치)과 동해·묵호항 육성사업비 115억원, 속초항 여객선부두 설치 사업비 15억원, 폐광지역 종합관광개발사업비 354억원(한도외 예산), 낙동강 발원지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3억원 등도 1차 심의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과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신규사업 대부분도 2차 심의 대상이다. 2차 심의 대상에는 신규사업이나 문제사업이 해당된다. 이처럼 새로운 현안 사업비 대부분이 2차 심의 대상으로 분류되자 도는 해당 부처 및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사업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예산 반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도가 신청한 총 1조4,212억원의 사업비 중 1조3,170억원이 반영된 국토해양부 예산안은 시·도 간 예산확보 경쟁이 치열해 결과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6일 환경부 및 여성가족부, 7일 농림수산식품부와 산림청, 9일 행정안전부와 국회, 10일 광역특별회계, 20일 보건복지부, 24일 국토해양부의 예산안에 대한 2차심의를 벌인다. 이어 9월 중순께 재정정책자문회의를 개최한 뒤 9월20일께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확정, 10월2일 국회에 제출한다.

이규호기자 hokuy1@

【2012.7.31(화) 강원일보】

"수해복구·방재 예산 확대해야"

박창근 "4대강 예산 집중으로 복구사업 재정 지원 축소"
김인호 "동해안 난개발로 너울성 파도·해안침식 심각"
김경남 "홍수 예방시설 건설 때 자연과의 조화도 고려"

강원일보사와 KBS 춘천방송총국이 마련한 토론의 장 집중진단 강원이 지난 25일 KBS 춘천방송총국 공개홀에서 '〈재난·재해특집 1〉 태풍·집중호우 대책'을 주제로 열렸다. 사회=정은숙 아나운서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최근 언론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상기후와 지구온난화, 게릴라성 집중호우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피해가 많다는 것은 분명하다. 지난 30년간 이런 요인은 재난·재해의 단골요인이었다. 그런데 여름철만 되면 홍수 피해가 나고 있는데 이유는 이상기후에 의한 홍수 피해는 증가하는데 우리가 잘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인위적 요인이 더 크다고 본다. 도는 1년 내내 조용한 날이 없는 재난집합소다. 복구과정에서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데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 최근 들어 재난의 중요성이 부상하며 도시계획을 수립할 경우 재난 계획을 세워야 하지만 형식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고려하게 돼있다. 4대강사업 예산이 22조원을 상회했다. 국가가 도 예산의 6~7배 정도로 홍수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모든 방재예산이 집중되다 보니 강원도는 재난 관련 예산이 축소돼 피해를 키우고 있다. 우리나라 산사태 행정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도내 사방댐이 깊은 산골에 설치돼 있다. 산사태가 나더라도 피해가 크지 않은 곳에 많이 설치하는 것은 예산 낭비다. 복구 관련 전근대적인 수의계약은 지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김인호 강원대 해양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태풍으로 인한 홍수는 내륙홍수가 있고 해양홍수가 있다. 최근 동해안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태백산맥과 동해가 근접해 있다는 것을 이유로 생각할 수 있다. 이로 인한 바다의 무분별한 난개발과 서남해안과는 달리 섬이 많이 없어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지형적인 요인이 크다. 특히 동해안 너울성 파도와 해안 침식이 심각하다. 해안침식 관련 도내 18개소가 아주 심각, 15개소가 우려지역 등 33개소가 특별관리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해안의 구조물 및 토사공급의 문제가 요인이 될 수 있다. 동해안이 아주 협소하게 돼 있다. 그래서 난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해안도로인데 이것이 해안사구를 훼손하는 역할을 한다. 계절적으로 겨울철에는 침식을 유발하고 여름에는 퇴적을 유발시키며 균형을 이루는데 해양환경이 조금만 변하면 균형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의 효율성 있는 집행이 필요하다.

△김경남 강원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일반적으로 얘기되는 것은 기후변화가 재난·재해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이다. 최근 통계를 보면 1970년대 하루 50mm 이상 비가 내린 날이 약 8회인데 2000년대는 두 배 증가했다. 최근 목격하는 기후변화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가 쌓아놓은 기상데이터를 무력화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강원도가 수해에 취약한 지형적 이유는 하천과 계곡이 많다는 것이다. 홍수가 많아지며 최근 사방댐 건설이 늘고 있다. 이유는 사방댐이 홍수에 많은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좀 더 발전적인 생각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안전 자체를 생각하고 있는데 향후 두 가지 요소를 첨가해야 한다. 첫째는 주변 자연과 조화되는 재료, 위치와 두 번째는 도시 근교에 여가휴양레크리에이션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의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변과 조화되며 주민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정리=이성현기자 sunny@

【2012.7.31(화) 강원도민일보】

요진건설 시공능력 도내 1위

국토부, 전국 1만540개 업체 평가 결과 전국 72위… 9년째 고수

원주 요진건설산업이 일반건설 토목건축업종 시공능력평가에서 9년째 도내 1위를 고수했다.

30일 국토해양부와 건설협회 도회에 따르면 도내 660여개를 비롯해 전국 1만 540개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시공능력을 평가한 결과, 요진건설사업이 토목건축공사업 분야에서 3319억원의 시공능력을 기록해 도내 1위, 전국 72위를 차지했다. 요진건설산업은 전국 순위가 지난 2009년 101위에서 2010년 78위, 지난해 61위로 계속 올랐지만 이번에는 72위로 내려 앉았다.

이어 현대아산과 신화건설이 각각 1317억원과 1131억원으로 2, 3위를 기록했고 정상종합건설(1097억원), 대림종합건설(971억원)이 뒤를 이었다. 또 이날 전문건설협회 도회가 발표한 도내 1741개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2012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 경동건설이 17개 업종 가운데 6개 업종에서 수위를 차지했다. 경동건설은 토공(787억원), 미장·방수·조적공사업(241억원),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244억원), 철근·콘크리트공사업(550억원), 상하수도설비공사업(253억원), 보링·그라우팅공사업(365억원) 등 6개 업종에서 1위를 차지했다.

설비건설협회 도회에서도 도내 191개 업체와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에 속하는 28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공능력평가를 조사한 결과 한국이엔씨가 시공능력평가액 239억원을 기록, 1위를 차지했으며 동양시멘트 E&C(156억원), 화신기업(88억원)가 각각 2,3위에 올랐다. 한편 이날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종합건설업 토목건축업종에서 현대건설이 11조 7108억원으로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삼성물산이 10조 1002억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2위를 고수했다. 대우건설은 재무구조 개선으로 지난해 6위에서 3위(9조224억원)로 상승했으며 GS건설은 8조 9002억원으로 4위를 차지했다. 박현철

■ 일반건설 토목건축공사업 순위표

순위		업 체 명	시공능력 평가액	전년순위 (도내)	순위		업 체 명	시공능력 평가액	전년순위 (도내)
도내	전국				도내	전국			
1	72	요진건설산업㈜	331,998	1	6	197	섬강종합건설㈜	94,578	4
2	141	현대아산㈜	131,785	2	7	200	동일건설㈜	91,013	9
3	158	신화건설㈜	113,162	6	8	207	㈜대양	89,755	7
4	162	정상종합건설㈜	109,773	5	9	231	㈜우일	79,322	8
5	191	대림종합건설㈜	97,195	3	10	248	㈜효성	71,316	11

발주기관 공사비 부당 삭감 막는다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안 내일부터 시행

예정가격 부당삭감 금지 등 적정 공사비 확보방안을 담은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안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설현장의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해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품셈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장 여건에 따라 품셈의 할증기준을 명확히 하고 발주기관이 부당하게 공사비를 삭감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했다.

또 총작업량이 하루 작업량 미만인 경우 품을 할증해 계상하도록 함으로써 현실에 맞는 공사비를 산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건설업체는 총작업량이 하루 미만이더라도 장비대여료와 근로자에게 하루 비용 및 일당을 지급했지만 품셈을 통해 보전받지 못했다.

박현철 lawtopia@kado.net